

## 오디션장에서 발생하는 여성 연예인 지망생이 경험하는 성희롱에 대한 대학생들의 용인수준과 관련요인 연구 - 성태도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종교유무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

이희진\*

### 논문초록

본 연구는 오디션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수준과 관련요인(성태도, 자아존중감) 간의 직·간접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data)는 서울, 충청남북도, 대구 및 경북지역에 위치한 5개 종합대학에서 연기, 방송연예, 미디어 등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얻었다. 자료분석에서 사용된 최종표본은 541명(남 248명, 여 298명)이다. 성희롱 용인(tolerance)에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직접효과와, 성차별적인 성태도의 직·간접효과, 그리고 기독교 종교유무의 조절효과를 밝히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인 집단이 무종교 집단에 비해 성희롱을 덜 용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기독교 종교를 가진 집단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3개 경로, 즉, '자아존중감→성희롱 용인'(.189\*), '자아존중감→성태도'(-.218\*\*), '성태도→성희롱 인용인'(.268\*\*)가 모두 유의하였지만, 무종교 집단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성폭력 용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자아존중감→성태도'(-.154\*) 경로와 '성태도→성희롱 용인'(.322\*\*)에서 직접효과는 각각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성태도→성희롱 용인' 경로에서 '성태도'는 기독교 집단에서는 부분매개효과(-.058; lo. -.155, hi. -.007)가 있었다. 무교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성희롱 용인'에는 직접효과가 없었지만, '자아존중감'이 '성태도'를 억제하여 '성희롱 용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성태도'가 완전매개 역할(-.050; lo. -.111, hi. -.018)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성희롱 인식개선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성희롱, 성희롱 용인, 성태도, 자아존중감, 연예인 지망생, 기독교, 종교

\*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외래교수.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예술전공 박사과정  
2014년 5월 1일 접수, 5월 29일 최종수정, 6월 3일 게재확정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들의 성희롱 및 성적 착취는 오래 동안 숨겨진 문제(hidden issue)로 존재해왔다. 2009년 발생한 故 텔런트 장자연의 자살사건(2009.03.07)을 계기로 연예인 실습생의 성접대 실태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서(JTBC 연예특종, 2013.3.29), 여성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상당수의 여성 연예인 지망생들이 다양한 형태<sup>1)</sup>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권위원회(2010.4.27)가 주도한 실태조사(2009)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연예인 및 연예지망생들의 인권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포럼 및 세미나도 개최되었고(2013.10.22), 일명 ‘장자연법’이라고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제정안(2013.12.31)을 통과시켜 관련 입법이 정비·강화되는 성과를 가져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신인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문제의식이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연예인이라는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이덕민, 국회입법조사처, 2013.10.22), 연예인이 되고자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이 크게 불균형인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출연기회를 얻기 위해서 선택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을’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갑’의 관계가 위계적이고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연예인 지망생들이 자율성을 행사하고 주체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게다가 여성 연예인들의 경쟁력은 ‘성적 매력’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 연예인은 전문적 직업인(competent professionals)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성적 매력을 지닌 성적 존재(sexual being)로 간주되기 쉽다(신성자, 1993:92). 왜곡된 성문화와 함께, 성차별적인 연예계의 조직문화에서 여성 연예인 지망생이 성적 지배대상이나 쾌락의 도구(이은아, 1999:57-63; 이은하, 2000:76)로 이용될

1) 국가인권위원회(2010.4.27)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66.6%), 몸의 특정부위를 쳐다보는 행위(30.2%), 듣기 불편한 성적 농담(9.6%), 몸의 일부를 만지는 행위(9.6%), 성관계 요구(6.5%), 성폭행/강간(3.9%). 국회입법조사처, 2013.10.23. 연예인 지망생 인권실태 및 보호방안 국회 인권포럼, 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p.7.

수 있다. 여배우들이 성적 호의(sexual favor) 내지 성성납의 대가로 배역을 따는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는 미국의 할리우드 및 인도의 발리우드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ABC 방송; Daily Mail, 2012.10.14; Aggarwal, Anil, 2008)이기도 하다. 여배우들이 성적 대상화(sexual object)가 되는 풍토에서, 여성 연예인 지망생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성적 관심’(Pukett, 1985:3), 즉 성희롱(sexual harassment)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성역할’과 ‘권력’(power)이 바로 성희롱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 맥킨논(MacKinnon, 1979:179)의 오래 된 주장은 여전히 설득력을 가진다.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사후개입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전에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에 틀림없다. 대학에서 연극연기, 방송연예, 영화·영상 제작, 미디어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전공 및 유사 영역에서 취업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장래에 연예산업 분야에서 연예인 또는 제작 담당자로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가진 이들 대학생들에게 연예계의 성희롱 문제는 자신에게 대두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관련 전공대학생들이 여성 연예인 지망생들이 겪는 성희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는 여성 연예인 지망생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안 모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성희롱 인식에 대한 초기의 개척연구(신성자, 1991; 1993)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선행연구(김정인·최상진·소영미, 2001; 장승희, 2003; 이지연·이은설, 2005; 김정인·손영미·김효창·홍윤기, 2006; 박선미·송원영, 2012; 심정신·이영숙·오숙희, 2012; 이영란·김경미·최소은, 2013)는 대부분 성역할 사회화의 관점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인식을 탐색하였다. 성역할 사회화는 성적 상황에서 남성은 적극적, 주도적이어야 하고, 여성은 수동적, 피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성희롱 가해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현실이 시사해 주고 있듯이,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파생된 역기능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서 이론적, 경험적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진 주류적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성희롱은 왜곡된 성문화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문제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성희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연구함에 있어서, 성역할 고정관념 관련요인과 함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구의 대상(object)으로 간주하지 않고, 가치 있는 존엄한 존재(being)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의 객체 또는 대상으로 하여 개인이 가지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의 총체가 자아개념(Rosenberg, 1965a;1979)이다. 자아 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이다(Harter & Whitesell, 2003).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뿐 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타인의 판단 역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김해숙, 2008:74). 자신이나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하여, 혹은 타인으로 부터의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다(김주환 외, 2008:85). 자아 존중감은 여러 가지 행동의 기초가 된다(홍민정, 2011:20).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관심 및 행위인 성희롱은 상대의 의지에 반한 자기중심적인 강압적 행위(coercive sexual behavior)로 상대방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 존중감이 양호한 사람은 성차별적인 성태도를 지양하고, 성희롱 문제에 좀 더 민감하여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질 것이라는 연구 가정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성희롱 및 성폭력 연구 중에서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대부분 피해 및 가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추호정, 2001:65-68; 홍민정, 2010:28)에 초점을 두었고, 자아존중감이 성희롱 및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최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승희(2003:35)는 자아존중감이 성폭력 인식, 성역할 태도, 그리고 피해경험 등과 상관성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상관성 분석에 기초한 이 연구는 인과관계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

기독교인의 자아 존중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에 둔다. 상위존재자와의 관계성에서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존중감을 가지게 된다(박미하, 2014:85).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의 자아 존중감은 형성배경 뿐 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 존중감의 기능에서도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에 대한 가치는 종교가 가진 보편적인 가치이다. 위계적 성별구조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같은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훼손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 대학생들과 무교인 대학생들이 가지는 문제

의식과, 이들의 자아 존중감 및 성차별적인 성태도가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규명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근자에 심정신·이영숙·오숙희(2012:12)는 종교유무가 성폭력 인식 및 성폭력 허용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단순히 두 집단(종교를 가진 집단, 무교집단)간의 성폭력 인식 및 성폭력 허용도의 평균값을 비교·분석(t-검증)한 결과이다. 따라서 성희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었고, 주요 변인들이 성희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종교유무’에 의해서 어떻게 유의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연구 분석 방법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술한 문제제기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연기자 및 연예인, 그리고 제작 분야 등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관련 분야를 현재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예인 지망생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성희롱 용인(tolerance)수준을 파악하고, 성희롱 용인에 자아존중감과 성태도가 미치는 직접효과와 함께, 자아 존중감이 이들의 성희롱 용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성태도의 매개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기독교인 대학생과 무교인 대학생 간에 이러한 직·간접효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해보면서, ‘종교유무’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볼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연예인 지망생 및 신인 연예인의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성희롱(sexual harassment) 개념 및 유형

‘성희롱’은 영어의 ‘sexual harassment’를 우리말로 번역한 용어이다. 괴롭힘 또는 성가심 등의 의미가 강한 harassment을 가볍게 놀린다는 의미가 있는 희롱(flirtation)으로 번역한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sexual harassment를 ‘성적 성가심’ 또는 ‘성

적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소개되기도 하였지만(신성자, 1993), 여성발전기본법(1995.12.20)에서 '성희롱'이라고 명시된 이후부터 공식용어로 통용되고 있다(강동욱, 2011). 맥키논(McKinnon, 1979:179)은 남성의 '성역할'과 '권력(power)'이 성희롱의 원인임을 강조한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성희롱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지된 학계의 주류적 입장이다.

김정인·최상진·손영미(2001:4)가 선행연구를 종합·검토하여 제시한 성희롱 구성조건의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에 의해 가해지는 '원치 않은 성적 관심 또는 성적언행', '성적 속성을 띤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형태의 언행', '그러한 언행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같은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및 물리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상대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와 힘을 가진 자가 적대적인 (근무)환경(hostile environment)을 조장하거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 행위 수용여부가 개인의 고용 및 인사 상의 불이익(quid pro quo)을 주는 형태인데, 즉, 보복형/대가형 성희롱이다.

푸켓(Puckett, 1985:3)은 성희롱으로 정의하기 위한 2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원치 않은"(unwanted)과 "성적 관심"(sexual interest)을 제시하였다(신성자, 1993:96). 물론 성희롱에 대한 상식수준의 행동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희롱에 대한 절대적인 정의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성희롱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해석적이며, 상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피해자(관점)를 존중해야 하며, 성희롱 정의는 다소 유연해야 함을 크로커(Crocker, 1983:706)는 강조하고 있다(신성자, 1993:96).

성희롱의 유형은 다양하다. 피츠제랄드(Fitzgerald, 1988)는 성희롱을 크게 5가지(27항목)로 유형화하였다(신성자, 1991; 1993: 104-5). 즉, '사회문화형'성희롱(socio-cultural gender harassment type)을 비롯하여, '유혹형'(sexual seduction), '뇌물형'(bribery), '협박형'(threat), '성행위 요구형'(sexual imposition)이다. '사회문화형 성희롱'은 전술한 '환경적 성희롱'과 유사하며, '유혹형' 혹은 '위협형' 성희롱은 '대가형' 혹은 '보복형' 성희롱특성과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 '사회 문화형'<sup>2)</sup> 성희롱은 행동특성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나 가장 만연되어 있는 보편적인 형태의 성희롱이다. 연예인

2) '사회문화형' 성희롱(gender harassment)은 능청스럽고 야한 농담, 교양 없는 노골적인 성에 관한 말(특히 신체부분에 대한 언급), 힐끔 힐끔 보거나 아래 위로 훑어보거나 뚫어지게 봄, 성에 관한 물건(포르노 포함)을 보여주거나 나누어주거나 사용함 등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및 연예인 지망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성희롱 유형이기도 하다(국회입법조사처, 2013.10.23. 연예인 지망생 인권실태 및 보호방안 국회인권포럼,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7). 행동특성이 비교적 덜 심각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문화형 성희롱은 성만연화된 풍토(sexualized climate)에서는 덜 문제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고려할 때(신성자, 1993:108), 연예산업 분야에서 신인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들이 빈번하게 경험하는 사회문화형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성희롱 발생을 지속 또는 강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과연 연예인 지망생이 오디션장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사회문화형 성희롱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연구문제 1).

## 2. 성차별적 성태도와 성희롱 용인(tolerance)

‘조직모델’(organizational model)과 ‘사회문화적 모델’(Tangri, Burt & Johnson, 1986:40)은 성희롱을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모델이다. ‘조직모델은 여성에 비해 남성들에게 더 많은 권력과 기회를 부여되는 성별 위계구조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게 되므로, 자신에게 종속적인 입장에 있는 여성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과 성적 착취가 용이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신성자, 1993a:95). 사회문화적 모델(social-cultural model)은 성역할 사회화에서 남성은 공격적, 지배적으로 여성은 수동적, 순응적 특성을 갖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역할이 아주 뚜렷하게 구분된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기 위해 성성(sexuality)과 공격성(aggression)을 함께 병합시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성희롱은 남성의 공격적·지배적, 여성의 수동적·복종적 상호작용의 연속선상(continuum)에서 발생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신성자, 1993a:95). ‘사회문화적 모델’은 니에바와 거텍(Nieva & Gutek)의 ‘성역할 모델(sex-role model)’, ‘성역할 사회화 관점 모델(sex-role socialization perspective)’, 텔스트라와 베이커(Terpstra & Baker)의 ‘학습관점에서의 성역할 사회화 접근(sex role socialization approach from the learning-conditioning perspective)’, 코스와 레나드, 비즐리(Koss, Leonard, Beezley & Oros, 1985)의 ‘사회학적 관점’ 모델 등과 유사하다. 이러한 모델들의 주장을 종합해볼 때, 성차별적 성태도가 강한 사람은 특히 사회

문화적 성희롱(gender harassment)를 덜 문제시하여 성희롱을 용인(tolerance)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연구질문 5).

### 3. 자아존중감과 성희롱 용인

자아 존중감은 여러 가지 행동의 기초가 된다(김은지, 1997; 홍민정, 2011). 자아 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이다(Harter & Whitesell, 2003).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평가로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가치 등에 대하여 스스로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낸다(Coopersmith, 1967; 김해숙, 2009:35). 상대가 원치 않은 성적 관심 및 행위인 성희롱은 상대의 의지에 반한 자기중심적인 강압적인 행위(coercive sexual behavior)로 상대방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인격도 존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아존중감이 양호한 사람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지양할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 존중감이 양호한 사람은 성차별적인 성태도를 지양하고, 자아존중감이 양호할수록 성희롱 문제에 좀 더 민감하여 성희롱을 덜 허용할 것이라는 연구 가정을 도출해 볼 수 있다(연구질문3, 4, 5).

윤명선(2000)은 초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 초기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자아 존중감’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자아 존중감의 향상은 건전한 성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연구(추호정, 2001; 홍민정, 2010; 박민자, 2009; 류본순, 2006; 김옥희·김갑숙, 2006)는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어왔지만,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성희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자아 존중감과 개인의 성희롱 인식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는 장승희(2003:35)의 연구는 단순 상관분석에 기초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성희롱 허용 및 용인에 미칠 수 있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뿐 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타인의 판단 역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김해숙, 2008:74). 자신이나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하여, 혹은 타인으로 부터의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다(김주환 외, 2008:85).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성희롱은 남성의 공격적·지배적, 여성의 수동적·복종적 상호작용의



연속선상(continuum)에서 성희롱이 발생된다는 관점(신성자, 1993a:95)에서 볼 때, 성역할 고정관념의 가치가 지나치게 강하게 내면화된 경우나 성역할 고정관념의 가치가 강하게 강조되는 환경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은 다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간은 사회화 과정에서 특정한 가치나 행동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외적 보상이나 내재적 흥미가 없는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기 때문이다(Deci & Ryan, 1989:132; Ryan & Connell, 1989:750; Ryan & Deci, 2000:71; 김주환 외, 2006:84).

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하는 성의 만연화현상이 뚜렷한 연예산업의 조직문화에 노출되는 연예인 지망생의 경우 성차별적인 성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둔감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연예인 지망생이 오디션 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한 용인정도가 낮아질 수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성차별적인 성태도가 강할수록 다소 더 약화되어 ‘성태도’는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연구질문 6).

#### 4. 기독교 종교유무와 성희롱 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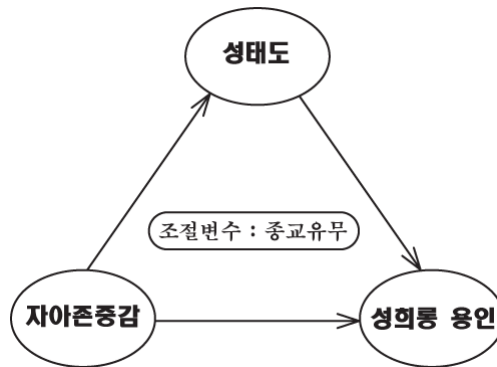
자아 존중감은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기독교인들의 자아 존중감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가 형성되어진다는 측면에서, 종교를 가지지 않은 비기독교인들의 자아존중감의 특성과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성된 기독교인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별 위계적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입장에 있는 강자(주로 남성)가 상대적으로 종속적인 입장에 있는 약자(주로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성희롱에 대해 훨씬 더 비판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종교유무에 따른 성폭력 허용도 및 성 인식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힌 심정신·이영숙·오숙희(2012:1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또는 무교) 간에 성희롱 인식과 관련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성희롱에 문제에 더욱 민감하여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을 것이고, 성희롱 용인에 자아 존중감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서도 무교인 대학생의 경우보다 다소 더 강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어 ‘종교유무’는 관련변인들의 직·간접효과를 유의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연구문제 2, 7).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모형

관련 분야를 전공(연구·연기, 방송·연예, 영화·영상 제작, 미디어 등)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연예인 지망생이 오디션을 받으면서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회문화형 성희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용인(tolerance)하고 있는지 이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성희롱 용인에 ‘자아 존중감’ 및 성차별적인 ‘성태도’가 미치는 직·간접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각 요인들의 경로를 도식화한 연구모형을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들의 성희롱 용인(tolerance)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2. 기독교 조사대상자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조사대상자 간에는 성희롱 용인, 자아 존중감 그리고 성차별적인 성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조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성희롱 용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조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성차별적인 성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조사대상자들의 성차별적인 성태도는 성희롱 용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6. 조사대상자대의 성차별적인 성태도는 자아존중감이 성희롱 용인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가?
7. 기독교 종교 유무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성태도가 성희롱 용인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성희롱 용인에 미치는 영향에 성태도의 매개효과를 유의하게 조절하는가?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 충청남북도, 대구 및 경북 지역에 위치한 5개 종합 대학에서 연기, 방송·연예, 연구·영화, 언론 및 방송·미디어 등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설문조사(survey)를 통해 얻은 자료(data)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서 사전에 각 대학의 관계자들과 접촉하였으며, 설문의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부탁하였다. 설문조사 협조자(교수, 조교)들에게 설문조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제공하였고, 설문지 배부 및 수집을 부탁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605명)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종교배경(불교, 유교, 천도교, 이슬람, 힌두교, 기타)을 가진 응답자를 제외하고, 기독교인 대학생 223명과 종교를 가지지 않은 대학생 318명만을 선정하여 본 연구 분석을 위한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기술통계와 모형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의 수는 총 541명이다. 조사기간은 2012년 11월 1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조사 응답자(541명)는 여성이 293명(54.2%)이고 남성이 248명(45.8%)이다. 평균연령은 약 22.3세이다. 종교배경은 무교가 318명, 기독교가 223명이다. 응답자들의 경제형편을 살펴보면, 60.1%(325명)가 ‘보통’이었고, ‘매우 궁핍’ 또는 ‘궁핍’하다고 응답한 경우(19.6%, 106명)와 ‘좀 여유 있음’ 또는 ‘매우 풍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전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전공분야를 보면, 연기예술, 연극학, 연극영화학 등이 44.4%(24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화·영상, 영화예술학 및 영상학이 32.7%(177명), 신문방송학, 언론 정보학, 미디어학, 광고학 등이 11.6%(63명), 기타(11.3%) 순이었다. 졸업 후에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 취업계획을 가진 경우는

10.4%(56명)에 불과하였고,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희망하는 응답자들이 46.2%이었고, 43.2%는 적어도 전공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유사분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측정도구

#### (1) 종속변수: 성희롱 용인(tolerance)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희롱 용인 척도는 연예인이 되기 위한 입문으로 연예인 지망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비공식 오디션(audition) 상황에서 빈번하게 겪을 수 있는 사회문화형(gender sexual harassment) 성희롱에 초점을 두었다. 응답자들이 제시된 성희롱 행위를 어느 정도 묵인 내지 용인할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을 위해서, 오디션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묘사한 한 삽화(vignette)를 작성하였다. 응답자들에게 비네트에서 제시된 성희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하고 순응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성희롱 용인척도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척도 문항 내용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너무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연기자 생활을 하고 싶으면, (비록 면접자가 성희롱적인 행동을 하였지만) 절대로 불쾌한 내색을 하지 말고, 면접자들이 묻는 말에 고분고분 잘 대답 한다.”, 혹은 “그것이 현실이니 적당히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내용에 대해 응답자들이 리커트 방식(5점 척도: 1=거의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 행위를 묵인하고 용인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희롱 용인 척도 Cronbach's  $\alpha$  계수로 평가하는 내적 일치도는 .762이다.

#### [비네트 작성 배경 및 내용]

본 연구는 연예인 지망생 및 연예인이 출현기회를 얻기 위한 오디션장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경험하는 성희롱이라는 특정 상황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피츠제랄드(1988)가 제시한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신성자, 1993:104)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성희롱'에 초점을 두어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문화적 성희롱에 대한 삽화 내용은 연예지망생들이 흔히 경험하는 성희롱으로 알려진 성에 관한 노골적인 말, 특히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언급을 통해 상대방에게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등의 내용(국가인권위원회, 2009: 90)을 반영하였다.

[ 성희롱 내용 ]

이수정(가명)씨는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던 중, 꽤 알려진 영화사에서 제작할 새 영화의 신인 여자배우 오디션소식을 듣고 지원하였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지원하였지만, 수백대 일의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면접까지 올라왔다. 오디션장에는 감독, 제작자, 남자주연 배우 등이 앉아 있었고, 이수정씨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영화나 연기에 대한 질문들이었지만 갈수록 점점 사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러한 질문들에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사람 됨됨이를 보기위해서 그런가 보다하고 성실하게 대답하였다. 그러던 중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의 성격함에 관한 질문들이 던져졌다. 이수정씨는 당황스럽고 불쾌했지만 차분히 “그런 건 왜 물으시나요?”라고 물어보았다. 감독은 우리영화를 이해하긴 위해서는 이런 질문도 다 필요하다고 했지만, 제작할 영화의 내용은 성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청소년관람가의 코미디물이었다. 질문에 선뜻 대답 못하고 머뭇거리자 “놀 건 다 놀았을 것 같은데 뭘 빼고 그러느냐?”, “얼굴이 색기가 흐르는 게 남자 여럿 잡아먹게 생겼다” 등등의 언사들이 감독과 제작자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수정씨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영화사 최종면접까지 가는 기회는 흔치 않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며, 오디션을 계속 받을지 중간에 포기를 할지 갈등하게 된다.

(2) 독립변수: 자아 존중감

로젠버그(Rosenberg, 1965:1979)가 개발한 자아 존중감 척도를 번안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어온(나눔의 집, 2006:9)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가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등)로 구성되어 있는 각 문항내용에 대해 응답자들이 리커트 방식(4점 척도: 1=매우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원래 10문항이지만 구조모형 분석에서 각각 2문항씩 항목 합산(item parceling)을 하여 5개 문항으로 묶었다. 문항이 많으면, 모델의 복잡성이 증가하여 표본의 크기, 모델의 적합도, 그리고 모수의 추정에 대한 유의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항목 합산을 하였다(우종필, 2012:329). 자아 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로 평가한 신뢰도는 .867이다.

(3) 매개변수: 성차별적인 성태도

응답자들이 얼마나 성차별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한 척도내용은 디 가스톤, 위드, 젠슨(De Gaston, Weed & Jenson, 1996), 이정은(1998), 이유태정(1995), 김정안·최상잔·손영미(2001:383), 버트(Burt, 1980), 김정안·손영미·김효창·홍윤기

(2006:387)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관련 척도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개의 척도 문항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척도 문항은 “결혼 전 순결을 지키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 “결혼 전에 임신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 “성에 대해 적극적인 여자를 좋게 보지 않는다.”, “야한 옷을 입어 여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그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 “남자들이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성적으로 강하고 적극적일수록 남자답다.” 등의 내용 등으로 적대적 성신념에 기초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 내용들이다(<표 2> 참조). 5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이고,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성행동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태도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로 평가한 신뢰도는 .705이다.

#### (4) 조절변수: 종교유무

종교유무는 이분형 변수(무교=0, 기독교=1)이다.

### 4. 분석방법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3개의 경로의 직·간접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AMOS 19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서 절대 적합지수인 RMSEA, 상대적 적합지수인 CFI와 TLI의 값을 제시하였다. ‘종교유무’(무교=0, 기독교=1)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하기 위해서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test)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는 일반적으로 정상성(normality)을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홍세희, 2009; Schumacker & Lomax, 2004), 슈라우트와 보우거(Shrout & Bolger, 2002)가 제시한 표준오차를 수정하여 편향(왜곡)을 수정한 신뢰구간을 구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을 하였다. 세 잠재변수의 평균값을 두 집단(무교 집단, 기독교 집단)간에 비교하기 위해서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절편동일성 검증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관측한 변수들(13개)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기준을 살펴보았다. 각 변수들의 왜도는 .130~1.576로 절대값 2를 넘지 않고, 첨도는 -.020~1.976으로 절대값 7를 넘지 않아 일변량 정규분포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AMOS로 측정된 다변량 결합분포의 왜도와 첨도의 결합 통계량은 29.663, C.R(critical ratio) 값은 16.291로 모형에 첨가된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이룬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는 자료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변량 정규성에 큰 문제가 없으면 구조모형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어(배병렬, 2007, 149-151)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측정변인		평균	SD	왜도	c.r	첨도	c.r	
자아 존중감 (1-4점) 2문항씩 항목 합산	1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음	3.24	.572	-.656	-.6228	1.029	4.884
	2	좋은 성품을 가졌음						
	3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할 수 있음	3.19	.585	-.240	-2.280	-.184	-.875
	4	나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						
	5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가짐	3.03	.668	-.400	-3.798	-.089	-.424
	6	자랑할 것이 별로 없음						
	7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	2.94	.799	-.171	-1.622	-.725	-3.443
	8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9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	2.75	.652	.130	1.237	-.020	-.093
	10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길 희망						
성태도 (1-6점)	1	혼전 순결은 여성이 지키는 것	2.60	1.610	.519	4.928	-1.001	-4.750
	2	성에 적극적인 여성에 부정적임	1.83	1.233	1.576	14.967	1.976	9.382
	3	야한 옷차림 여성에 성폭력 책임	2.49	1.341	.556	5.279	-.537	-2.550
	4	여러 여성 성관계는 나쁘지 않음	2.11	1.282	.917	8.710	.072	-.344
	5	성적으로 적극적일수록 남성다움	2.06	1.234	1.125	10.682	.686	3.258
성희롱 용인 (1-5점)	1	흔한 일로 너무 불쾌할 필요 없음	1.94	1.035	1.065	10.114	.598	2.838
	2	불쾌함 내색하지 않고 고분고분함	2.51	1.195	.332	3.154	-.878	-4.167
	3	현실을 적당히 잘 용인	2.48	1.152	.312	2.961	-.878	-4.169
<b>Multivariate</b>						27.663	16.291	

〈표 1〉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분포(N=541명)

## 2.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

독립변수('자아존중감'), 매개변수('성태도'), 종속변수('성희롱 용인') 간의 관련성 정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3개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의 최고값이 .207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성희롱 용인'과 '성태도'(.207,  $p < .000$ )는 유의한 상관이었지만 '자아존중감'(.065)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성태도'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125,  $p < .004$ )을 보여주어 '성태도'를 매개로 '자아존중감'이 '성희롱 용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연구모형을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성희롱 용인'(평균, 2.3087, 5점 척도)은 '보통'(3점) 수준 보다는 낮지만, 전반적으로 용인하지 않으려는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수준(2점 이하)에는 못 미치고 있다. 빈도 분석결과를 보면, 약 47.7% 정도가 제시된 성희롱 상황을 용인하려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연구질문 1). 성희롱을 용인하는데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한 응답자는 약 5.9% 정도에 불과하지만, 절반이 넘는 약 58.6%의 응답자는 제시된 성희롱을 용인할 것인지 용인하지 않을 것인지 다소 불명확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 집단(2.2123) 보다 무교집단(2.3763)이 성희롱을 용인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연구질문 2). 이는 기독교인 대학생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서 성희롱을 덜 용인하려한다는 의미이다. 빈도분석 결과로 두 집단 간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먼저 무교집단의 경우,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인 응답자들은 약 41.5%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반면에, 제시된 성희롱 상황을 순응하고 용인하려는 입장(척도점도 4점 이상)을 표명한 응답자들은 약 5.3%에 불과하였다. '그저 그렇다'(3점)라고 응답한 13.8%(44명)을 제외하고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약 69.5%가 상대적으로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약 17.3%는 용인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명백하게 표명한 응답자들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절반 이상(53%)의 응답자들은 제시된 성희롱 상황에서 자신이 용인할 것인지 용인하지 않을 것인지 다소 불명확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희롱 용인 정도에서 상당한 개인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독교인 집단의 경우에도, '그저 그렇다'(3점)라고 응답한 9.4%를 제외하면, 약 17.8% 정도는 성희롱을 용인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다수인 약 71.7%는 성



희롱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성희롱을 용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경우는 6.7% 정도이고, 절반이 넘는 약 56.5%는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빈도분석결과는 기독교인 대학생들이 무교인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희롱을 덜 용인하려는 현상을 보여준 평균비교 분석결과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척도의 평균값이 3점을 넘는 수준이다. 자아 존중감 수준이 명백하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난 응답자들(2점 이하)은 극소수(5명, 3.3%)에 불과하고 응답자들 중에 절반이 넘는 약 52.5%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교집단과 기독교 집단 집단의 자아 존중감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연구질문 2). 성태도 척도(6점 척도)의 평균값은 2.2196인데, 차별적인 성태도에 대해 응답자들에 동의수준을 묻는 척도 문항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다르다(3점)’ 수준보다도 훨씬 낮고 ‘거의 다르다(2점)’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성차별적 성태도에 대해 약한 긍정(4점)에서 강한 긍정(6점)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은 4.8%에 불과한데 비해 약한 부정(3점)에서 강한 부정(1점)을 한 응답자는 약 84.1%에 이르고 있어, 전반적으로 성차별적인 성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유무에 따른 두 집단의 성태도 척도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연구질문 2).

변수명/척도	전체 평균		2 집단 평균비교				t 값
	평균	SD	무교		기독교		
			평균	SD	평균	SD	
1. 자아 존중감(4점)	3.0272	.53321	2.9994	.54385	3.0668	.51629	-1.450
2. 성태도(6점)	2.2196	.91270	2.1566	.88379	2.3094	.94719	-1.922
4. 성희롱 용인(5점)	2.3087	.92686	2.3763	.88879	2.2123	.97259	2.000

\* : p<.05 \*\* : p<.01 \*\*\* : p<.001

〈표 2〉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종교유무에 따른 2 집단 평균비교(N=541명)

### 3.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chi^2=242.674$ ,  $df=62$ ,  $p.000$ ,  $TLI= .903$ ,  $CFI= .923$ ,  $RMSEA= .073$ (Lo.  $.064$  Hi.  $.083$ ))가 양호하여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

다. ‘자아존중감’, ‘성태도’, ‘성희롱 용인’은 이론적 개념(잠재변수)으로 다중지표를 사용하여다. 종속변수(‘성희롱 용인’), 독립변수(‘자아존중’) 및 매개변수(‘성태도’)간의 관련성 정도 및 방향성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검토하였다.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반영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의 내용과 같다.

잠재변인	측정지표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C. R	P.	SMC
자아 존중.	항목합산 9문항. 10문항	.713	1.000				.385
	항목합산 7문항. 8문항	.792	1.502	.105	14.294	***	.578
	항목합산 5문항. 6문항	.903	1.493	.094	15.846	***	.816
	항목합산 3문항. 4문항	.760	1.148	.078	14.715	***	.628
	항목합산 1문항. 2문항	.620	1.009	.074	13.637	***	.508
성태도	성적으로 적극적일수록 남성다움	.660	1.000				.435
	여러 여성 성관계는 나쁘지 않음	.539	.626	.066	9.476	***	.291
	야한 옷차림 여성 성폭력 책임	.602	.761	.074	10.220	***	.363
	성에 적극적인 여성에 부정적임	.652	.788	.074	10.662	***	.425
	혼전 순결은 여성이 지키는 것	.404	.470	.063	7.514	***	.164
성희롱 용인	흔한 일로 너무 불쾌할 필요 없음	.689	1.000			***	.475
	불쾌할 내색하지 않고 고분고분함	.772	1.306	.106	12.377	***	.596
	현실을 적당히 잘 용인	.699	1.140	.0920	12.335	***	.489

\*\*\*p<.001, \*\*p<.01, \*p<.05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N=605명)

모든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요인 적재값( $\lambda$  값)이 .404~.903이고, C.R 값이 7.514~15.846이며, p값은 .001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중상관자승값(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은 .164~.816사이로 모든 측정모형의 개별 항목의 구성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측변수들(indicators)들의 상관계의 값이 클수록 집중타당성 혹은 수렴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의 방향성이 정적방향(+)이고, 유의성이 뒷받침되어 법칙타당도(nomological validity)도 인정된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각 척도의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가 인정된다(이원준·신성자, 2013:157).

#### 4. 연구모형 검증(N=541명)

전체 응답자들에 대상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chi^2=242.674$ ,  $df=62$ ,  $p.000$ ,  $TLI=.903$ ,  $CFI=.923$ ,  $RMSEA=.073$ (Lo. .064 Hi. .083))는 대체로 양호하여, 모형에 포

합된 3개의 경로들, 즉 ‘자아존중감→성희롱 용인(.134\*)’, ‘자아 존중감→성태도(-.170\*\*)', ‘성태도→성희롱 용인’(.275\*\*\*)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설정한 세 경로의 추정치의 크기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경로계수차이(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 between parameters)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자아 존중감→성태도’(-.170\*\*)의 추정치가 ‘자아존중감→성희롱 용인’(.134\*)경로와 ‘성태도→성희롱 용인’(.275\*\*\*)경로의 각 추정치보다 검증 결과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t=4.274$ ,  $t=3.834$ ). 이러한 결과는 경로추정치의 절대값의 크기차이가 아니고, ‘자아 존중감→성태도’(-.170\*\*)의 추정치는 음수(-)이고 다른 두 경로의 추정치가 양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태도→성희롱 용인’(.275\*\*\*)경로의 추정치가 ‘자아존중감→성희롱 용인’(.134\*)경로의 추정치에 비해 수학적으로는 다소 높은 값이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 $t=.562$ )가 아니며 두 경로의 각 직접효과의 영향력은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태도’는 ‘자아존중감’이 ‘성희롱 용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유의하게 매개(-.047; lo. -.096 ~ hi. -.016)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희롱 용인’ 수준도 증가하였을 뿐 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차별적인 ‘성태도’ 성향이 감소되었고, 차별적인 ‘성태도’ 척도점수가 증가할수록, 성희롱을 더 많이 용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별적인 성태도는 ‘자아 존중감’에 의해 약화되면서, ‘성태도’는 ‘자아 존중감’이 ‘성희롱 용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억제시키는 유의한 매개역할(-.047; lo. -.096 ~ hi. -.016)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세 경로의 추정치가 ‘종교유무’에 따라서 유의하게 조절되는지 여부를 입증해보기 위해서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행조건인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을 검증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비교하려는 두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이 척도문항 내용을 동일한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측정자가 아닌 척도로 두 집단의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인(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의 내용을 두 집단(무교집단, 기독교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측정동일성과 절편동일성 검증결과도 아래 <표 4>에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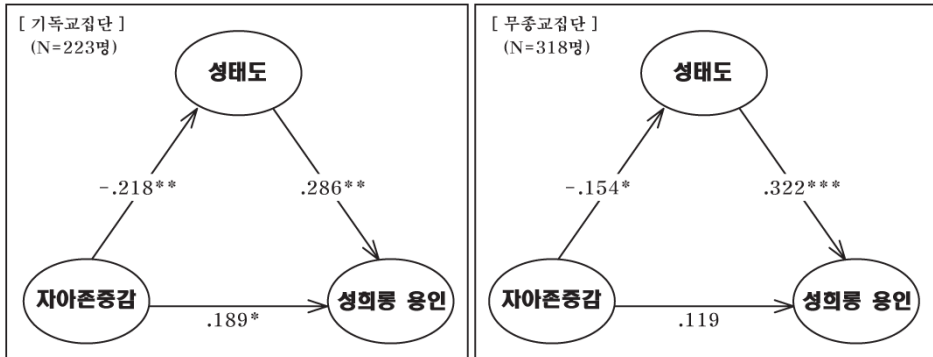
	df	Chi-square	CFI	TLI	RMSEA
기저모형	124	310.550	.921	.900	.053
측정동일성 모형	134	317.616	.922	.909	.050
절편 동일성	147	366.223	.911	.905	.051

〈표 4〉 측정동일성 및 절편동일성 검정결과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간의 자유도 차이는 10( $\Delta df=10$ )에서 임계치는 18.31인데, 카이자승값의 차이( $\Delta\chi^2=7.066$ )가 임계치를 보다 작아서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과 함께 절편동일성 검증을 하였다. 구조모형에 포함된 3개의 주요 변인(성희롱 용인, 자아존중감, 성태도)은 측정변인이 아니고 잠재변인(이론변인)이다. 측정변인에서 측정오차를 제거한 잠재변인의 경우 집단 간의 평균비교를 위해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을 실시하기 전에 선행조건인 절편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자승값이 38.607이므로, 자유도 차이가 14( $\Delta df=14$ )일 때의 임계치인 22.36보다 커서 절편 동일성이 기각되었다. 게다가 모형의 적합도 또한 나빠져서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을 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구조모형분석을 하였지만, 각 잠재변인의 평균값을 두 집단 간에 비교할 수 없었다. 대안으로 측정오차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의 측정변수의 평균값을 두 집단 간에 비교하는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앞서 〈표 2〉에서 제시한 바 있다.

## 5. 두 집단의 직·간접효과 비교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3개의 직접경로와 1개의 간접경로의 추정치를 기독교 집단과 무종교 집단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그림 2] 및 〈표 5〉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그림 2] 연구모형분석

[직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SE)				표준화 추정치	
	무교	SE	기독교	SE	무교	기독교
자존감→성태도	-.377*	.172	-.624**	.238	-.154*	-.218**
성태도→성희롱 용인	.215***	.054	.188**	.063	.322***	.268**
자존감→성희롱 용인	.196	.113	.380*	.163	.119	.189*
<b>[총효과]</b>						
자존감→성태도	-.377*		-.624**		-.154*	
성태도→성희롱 용인	.215***		.188**		.322***	
자존감→성희롱 용인	.115		.263*		.070	
<b>[간접효과]</b>						
자존감→성태도→성희롱 용인	-.081		-.117		-.050	
편향수정 신뢰구간	무교	Lo	-0.111	Hi	-.008	
(95%):상·하한 값	기독교	Lo	-0.155	Hi	-.007	

\*\*\*p<.001, \*\*p<.01, \*p<.05

<표 5> 연구모형에 대한 두 집단의 효과 분해(N=541명)

기독교 집단과 무교집단의 각 경로에 설정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교집단(-.154\*)과 기독교 집단(-.218\*\*) 모두 ‘자아존중감’이 ‘성태도’에 부적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기독교 종교 배경유무에 관련 없이, 응답자들 모두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차별적인 성태도를 덜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연구문제 4).

둘째, 성태도는 성희롱 용인(tolerance)에 정적 직접효과를 미쳤다. 이러한 현상은 무교집단(.322<sup>\*\*\*</sup>)과 기독교 집단(.268<sup>\*\*</sup>)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차별적인 성태도를 가질수록, 성희롱을 더 용인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연구문제 5).

셋째, 자아존중감이 성희롱 용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기독교 집단(.189<sup>\*</sup>)에서는 유의하였지만, 무교 집단(.119)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성희롱을 용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독교인 응답자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성희롱 용인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3).

넷째, 성태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기독교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성희롱 용인에 미치는 영향에 성태도가 부적으로 부분 매개역할(-.050; Lo -.111, Hi -.008)을 하였고, 무교집단에서는 부적으로 완전매개역할(-.058; Lo -.155, Hi -.007)을 하였다. 즉, 기독교인 응답자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성차별적인 성태도가 낮아지고, 이러한 차별적인 성태도가 낮아질수록 성희롱을 덜 용인하게 된다. 따라서 성태도가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성희롱을 더 용인하는 성향을 다소 억제(buffering)시켜, 성태도는 부분 매개역할(-.050)을 하였다. 한편,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성희롱 용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지만, 자아존중감이 성차별적인 성태도를 감소시키고, 차별적인 성태도가 낮아지면서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즉, 종교를 가지지 않은 대학생의 경우, 성희롱을 얼마만큼 용인할 것인지는 자아존중감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얼마만큼 차별적인 성태도를 가졌는지 여하에 따라, 이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성희롱 용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됨으로, 성태도는 완전매개(full mediation)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연구문제 6).

다섯째, 모형에 설정한 세 경로의 각 추정치를 기독교 종교유무로 비교분석해 본 결과, ‘자아존중감→성희롱 용인’(기독교 집단 .189<sup>\*</sup>; 무교 집단 .119) 경로에서는 기독교인 응답자들과 종교를 가지지 않은 대학생들 간에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즉, 종교가 없는 대학생들의 경우는 이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성희롱 용인 수준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지만, 기독교를 믿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오히려 성희롱을 용인하는 정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독교 종교유무’는 유의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가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연구문제 7).

## V. 논의

본 연구는 최근 사회문제(social issues)로 부각되고 있는 연예인 지망생들에 대한 성희롱 문제에 주목하면서, 성희롱 사후대처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연구·연기, 방송·연예, 영화·영상 제작, 미디어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541명)들을 대상으로, 연예인 지망생들의 성희롱에 대해 이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절대 다수가 관련 전공분야 또는 유사분야에서 취업을 계획 또는 희망하고 있다(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내용 참조)는 사실을 고려할 때, 관련 전공 대학생들은 연예 및 방송 산업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연예인 성희롱 문제에 일반 타 전공학생들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 대두할 현실문제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식·비공식 오디션(audition)은 많은 연예인 지망생들에게는 출연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오디션장에서 연예인 지망생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사회문화형’ 성희롱(socio-cultural gender harassment type)을 중심으로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성희롱 용인(tolerance) 정도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용인’(tolerance)의 의미는 찬성한다는 의미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견딘다’ 또는 ‘관용한다’의 의미이다. 즉, 성희롱 행위를 불쾌하게 생각할지라도, 직면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연예인 지망생들은 출연기회를 얻으려는 열망이 매우 강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오디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오디션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성희롱 행위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으로(불쾌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규명보다, 오히려 연예인 지망생들이 오디션장에서 겪을 수 있는 성희롱을 관련 전공 대학생(조사 대상자)들이라면, 과연 어느 정도 묵인 내지 용인하려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자료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성희롱 용인’(2.3087, 5점 척도) 정도는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수준(2점 이하)에 다소 못미쳤다.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절반보다 적은 47.7% 정도에 그쳤고, 절반이상(58.5%)이 성희롱을 용인할 것인지 또는 용인 하

지 않을 것인지 불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기독교인 대학생들이 성희롱 용인수준이 더 낮았다. 즉, 기독교인 대학생들이 종교가 없는 대학생보다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뚜렷하였다( $t=.2000$ , <표 2> 참조).

둘째, 자아존중감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3.0272, 4점 척도). 성차별적인 성태도(2.2196)를 보면, 다수(84.1%)가 성차별적인 성태도에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종교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성태도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5>).

셋째, 자아존중감, 성차별적인 성태도, 그리고 성희롱 용인, 이 세 주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성태도’(무교 -.154\*, 기독교 -.218\*)와 ‘성태도→성희롱 용인’(무교 .322\*\*\*, 기독교 .268\*\*). 이 두 경로는 두 집단(무교집단, 기독교집단) 모두에서 각각 유의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성희롱 용인’ 경로에서는 기독교 집단(.189\*)에서는 유의하였지만, 무교 집단(.119)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5>).

넷째, ‘자아존중감→성태도→성희롱 용인’ 경로에서 ‘성태도’는 기독교 집단에서는 부분매개(-.058; Lo -.155, Hi -.007), 무교집단에서는 완전매개(-.050; Lo -.111, Hi -.008)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

다섯째, 기독교 집단(.189\*)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성희롱 용인에 유의한 직접효과(.189\*)를 미쳤지만, 종교가 없는 무교집단(.119)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성희롱 용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는 ‘자아존중감→성희롱 용인’ 경로에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가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표 5>).

자료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토대로, 논의점을 찾고 함의(implications)를 제시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성차별적인 성태도가 성희롱 용인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가 실증적으로 규명되어, 성차별적인 성태도가 강한 학생일수록 성희롱을 훨씬 더 용인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여성에게 적대적인 성신념에 근거한 성차별적인 성태도를 가질 경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성희롱에 대해 문제의식이 그만큼 더 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는 성희롱 및 성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성역할 고정관념의 역기능임을 강조하는 선행 이론가 및 연구자들(McKinnon, 1979; Gutek, 1985; Tangri, Burt & Johnson, 1982; Gutek & Morasch, 1982; 신성자, 1991; 1993)의 주장과 일치한다. 연예, 방송 영역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



고 있는 관련전공 대학생들 역시 성희롱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과정에서 이들에게 차별적인 성태도를 수정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지식전달 형식의 교육을 지양하고, 체험학습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과정은 사회의 어느 공간보다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대학교육을 통한 성평등성 사고를 함양하는 것은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 확보가 용이한 대학이 가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성평등성 강화 및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표적 집단(target group)으로, 연예·방송·제작 분야 등에서 취업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은 관련 전공 분야의 대학생들은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상대방의 인격 또한 존중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자아존중감이 양호할수록,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성희롱과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 더 비판적일 수 있어, 성희롱을 묵인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강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자료분석 결과는 이와는 오히려 상반된 현상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비네트(vignette)에서 제시한 오디션장에서 연예인 지망생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사회 문화형 성희롱을 용인하는 정도를 기독교 대학생들과 무교 대학생들 간에 비교해보았을 때(<표 2> 참조), 무교인 학생이 기독교 대학생들 보다 성희롱을 더 많이 용인하였다. 이는 기독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 학생들이 무교학생들보다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분명하다는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성희롱 용인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당혹스럽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독교 학생들이 무교 학생들보다는 분명히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독교 학생들 중에서도,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서 성희롱을 용인하는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기독교 학생이 오히려 성희롱을 더 용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기독교 학생들이 무교 학생들과 비교해서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표 2>), 무교학생들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성희롱 용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비해, 기독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경우, 성희롱을 용인하려는 현상이 더 뚜렷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

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대해 몇 가지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기독교인들도 타인이 자신에게 옳지 못한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불쾌하고 분노할 수 있지만, 이보다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의롭지 못하고 부당한 행위 또는 죄를 행했을 때 오히려 더 좌절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자아 존중감이 양호한 기독교 학생들의 경우, 비록 연예인 지망생이 오디션장에서 겪는 사회 문화형 성희롱에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가해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크게 상처입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추론해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종속변수인 성희롱 용인은 성희롱에 대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고 비판적인가에 초점을 두었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성희롱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어느 정도 묵인 내지 수용할 수 있는지, ‘용인’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희롱은 오디션장에서 발생하는 연예인 지망생이 겪는 성희롱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행동특성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있어서 공식·비공식 오디션은 출연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입로이다. 출연기회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오디션장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회 문화형 성희롱에 대해서 비록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출연기회를 얻기 위해 성희롱과 같은 굴욕적인 행위를 어느 정도 견딜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행동특성이 훨씬 심각한 성행위 요구형(sexual imposition type)과 같은 성희롱에 비해서 이러한 사회문화형의 성희롱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인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학생들 중에서도 자긍심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경우,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목표(오디션 합격, 출연기회 등)를 성취하기 위해서, 비록 굴욕적이지만, 오디션장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화형 성희롱을 견디어 내는 용인(tolerance) 수준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성희롱 용인 수준도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성희롱에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성희롱의 행동특성이 보다 더 심각한 형태(예: 위협형, 성행위형)일 경우와, 성희롱이 발생하는 상황 및 맥락에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들의 보일 수 있는 대응양상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는 대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함께, 종교 및 신앙 배경이 다른 학생들에게 제공할 교육 내용을 구별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보편성’과 ‘차별성’을 둔 내용이 모두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종교배경을 고려한 관련 학계와 종교계가 연계한 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기독교인 대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서 신앙 생활 지도와 관련하여서도 시사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자아존중감은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다. 기독교의 핵심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며, 그 대상은 자신을 해친 ‘원수’에 까지 확장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긍심이 강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용적일 수 있지만, 부당한 행위자에 대한 관용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당한 행위를 지속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을 포함한 다수에게 더욱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그 성희롱 행위를 자기 자신 한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개인의 소극적인 대응은 결과적으로 성희롱을 지속 또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쟁점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기독교인 대학생들에게도 관용(tolerance)이 항상 미덕일 수 없고, 부당한 행위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직면 또한 적극적인 사랑의 형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고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기독교인 대학생들에게 신앙적인 지도를 하는 위치에 있는 교직자 및 신앙 지도자들은 성희롱과 같이 문제의 근원이 개인적인 심리·행동 특성 보다 오히려 가부장적 성별 위계 및 사회적 위계의 맥락에서 야기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종교 및 교회 조직 또한 성희롱과 같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인권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과연 성희롱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도록 신앙지도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예인 지망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형태인 ‘사

회 문화형' 성희롱에 연구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사회문화형 성희롱 이외에 연예인 지망생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위협형 성희롱, 성해위형 성희롱 등)을 본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행동특성이 보다 더 심각한 형태의 다양한 성희롱을 포함하여 기독교인 대학생과 무교인 대학생들의 인식 및 반응을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 용인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함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개인적인 배경, 특히 개인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능력, 경제상태, 기회등), 그리고 연예계의 관행(corrupted practice)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지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예인 지망생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연구가 현황 및 실태조사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자아존중감, 성태도, 그리고 성희롱 용인 등과 같은 주요 변인들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시도한 실증연구로서 개척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간과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여 후속연구를 통해 연예인 성희롱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동욱 (2011).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단의 비교고찰.” 『한양법학』, 22권 3호. 541-562.
- 국가인권위원회 (2009).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연기자 중심으로.” 2009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2010).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2010-04-27). 국가인권위원회.
- 국회입법조사처 (2013). 『연예인 지망생 인권실태 및 보호방안』 (2013-10-22). 서울: 국회인권포럼 공동학술제미나.
- 김옥희·김갑숙 (2006). “여성주의 집단미술치료가 성폭력 생존자의 자존감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미술치료학회』, 13(2). 311-335.
- 김은지 (1997).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정체감 및 성의식과의 관계 연구: 제주지역 여고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인 외 (2001). “성희롱 문제 지각에서 성차 및 성역할 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여성』, 6(3). 1-22.
- 김정인 외 (2006). “성별 및 성희롱 경험에 따른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여성』, 11(4). 377-397.
- 김주환 외 (2006). “온라인 게임 중독의 유형과 원인에 관한 연구: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5). 79-107.
- 김혜숙 (2008). “비영리조직기부자의 관계지속의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류본순 (2006). “무용/동작 치료가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과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무용교육학회』, 17(2), 1-17.
- 박미하 (2014).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존감의 매개효과.” 『신앙과 학문』, 19(1). 77-96.
- 박민자 (2009). “집단 미술치료가 아동기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미술치료학회』, 16(3), 445-463.
- 박선미·송원영 (2012).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성관련 경험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65-280.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신성자 (1993a).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sexual harassment)의 유형,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피해여성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경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 93-109.
- 신성자 (1993). “직장여성들의 성적 성가심(sexual harassment)에 대한 인식과 반응에 대한 연구-피해자 가해자의 직장에서의 위계적측면에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21. 91-121.
- 심정신 외 (2012).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및 성폭력 허용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 18(2). 117-125.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윤명선 (2000). “초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유정 (1995). 『고등학생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원준·신성자 (2013). “중년 딸이 지각하는 부모현신이 노부모 신체부양에 대한 정서적, 규범적 현신에 미치는 영향 -다중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4). 144-173.
- 이은아 (1999). 『기업 내 남성네트워크와 여성배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은하 (2010). 직장내 성희롱 연구에 대한 문헌적 고찰. 『젠더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5. 69-90.
- 이영란 외 (2013). “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평등 인식수준 및 영향요인.” 『지역간호학회지』, 24(1). 41-50.
- 이정은. (1998). 『자아상, 성태도, 충동성과 성행동의 관계 : 서울시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이은설 (2005). “예착, 강간통념 및 성적 자율성과 데이트 성폭력과의 관계-고등학생,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346-347.
- 장승희 (2003). “청소년의 성폭력 인식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소연 외 (2007). 『사회복지척도집』 (2nd). 서울: 나눔의집.
- 추호정 (2000).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집단 내에서의 성희롱 경험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 서울시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민정 (2011). “초등학생의 성폭력 실태,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관계, 성폭력 대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 중급, 2009고급방법론 워크샵시리즈6』. 서울: S&M 리서치 그룹.

Aggarwal, A. (2008). *Forensic and Medico-Legal Aspect of Sexual Crimes and Unusual Sexual Practice*. FL: CRC Press. 208.

Burt, M.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Crocker, P. (1983). “An Analysis of University Definitions of Sexual Harassment.” *Sign* 8(4). 696-707.

De Gaston J. F., Weed S., & Jensen, L. (1996). “Understanding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sexuality.” *Adolescence* 31(121). 217-231.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Press.

Fitzgerald, L. F. (1988). “The Incidence and Dimension of Sexual Harassment in

- Academia and Workpla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2). 152-175.
- Gutek, (1985). *Sex and the Workplace: The Impact of Sexual Behavior and Harassment on Women, Men, and Organiza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422~445.
- Gutek, B. A. & Morasch, B. (1982). “Sex-Ratios, Sex-Role Spillover, and Sexual Harassment of Women at Work.” *Journal of Social Issues*. 38(4). 55 - 74.
- Harter, S. & Whitesell, N. R. (2003). “Beyond the debate: Why Some Adolescents Report Stable Self-Worth Over Time and Situation Whereas Others Report Changes in Self-Worth.” *Journal of Personality* 71(6). 1027-1058.
- Koss, M., Leonard, K. E., Beezley, D. & Oros, C. (1985). “Nonstranger Sexual Aggression: A Discriminant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Undetected Offenders.” *Sex Roles* 12(9-10). 981-992.
- MacKinnon, C. A. (1979).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 A Case of Sex Discrimin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78.
- Puckett, Darlence Loretta, (1985). “Reactions to Workplace Sexual Harassment as a Function of Gender,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Sex-Role Orientation, and Just Worl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FL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Rosenberg, M. (1965a).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304-319.
- Rosenberg, M. (1965). “The Self-Esteem Scale.” in Robinson, J. P. (Ed.)(1991).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Oxford: Academic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49-761.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Tangri, S., Burt, M., & Johnson, L. (1982). “Sexual Harassment at Work: The Three Explanatory Models.” *Journal of Social Issues* 38(4). 35-54.
- Schumacker, R., & Lomax, R. (2004).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hin, Sung-Ja (1991).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tructions of Women's Internal and External Reactions Toward Sexual Harassment at the Workpla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양승준. (2013.12.31). “연예인 성매매 권유해도 처벌” ‘장자연법’ 국회 통과. 이데일리 [On-line]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71&newsid=01945046603044096&DCD=A407&OutLnkChk=Y>
- 이미나. (2013.03.29). 연예인 성접대, 아이돌 연습생도 가격표 있다? “무명 25만원, 대형기획사는 80~100만원. 한국경제 [On-line],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2974227>
- Celeste Morgan. (2012.10.14). ‘It was really disgusting’: Susan Sarandon reveals she was exploited on the casting couch as a young actress. Daily Mail [On-line] <http://www.dailymail.co.uk/tvshowbiz/article-2217415/It-really-disgusting-Susan-Sarandon-reveals-exploited-casting-couch-young-actress.html>



## ABSTRACT

### The Study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toward Sexual Harassment among Women Performers taking part in Auditions, and Correlate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xist Attitudes toward Sexual Behavior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

Hee-Jin Lee (Daegu University)

The predominant concerns of the study consist of: (1) the direct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tolerance toward sexual harassment at an audition meeting; (2)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sexist attitudes toward sexual behavior on the tolerance toward sexual harassment; (3) the moderating effect of student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on each causal relationship. The research i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with 541 college students, including 248 male students and 298 female students, majoring in media, film and theatre from fiv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Chueonan, Cheongju, Daegu and Gyeongsangbuk-do. In order for respondents to verify research ques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s were explored. A variety of tests were conducted (i.e. metric invariance test,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test, multi-group analysis, bias-corrected boot-strapping).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acticing Christian students showed direct influences from all three path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positive effect of self-esteem on the extent to which they would tolerate sexual harassment; the effect of self-esteem on reducing the sexist attitude toward sexual behavior; and the effect of sexist attitude toward sexual behavior on level of tolerance toward sexual harassment. On the other hand, self-esteem among atheistic and non-Christian students did not show a direct effect on their tolerance of sexual harassment; yet self-esteem had a direct effect on the sexist attitude toward sexual behavior, and the sexist attitude also influences the

tolerance to sexual harassment. Second, Christian students' self-esteem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tolerance to sexual harassment, resulting from the suppression of the sexist attitudes toward sexual behavior. Lastly, among atheistic and non-Christian students, although self-esteem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their level of tolerance of sexual behavior, their sexist attitude toward sexual behavior shows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path between self-esteem and level of tolerance towards sexual harassment, stemming from the suppression of sexist attitudes by self-esteem. Som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Key words: sexual harassment, the tolerance toward sexual harassment, self-esteem, the attitude toward sexual behavior, entertainer, applicant for an entertainer, Christianity, religion